

빈 좌석 옆 예약 확률 높이는 '비행기표 예매 꿀팁'

항공사는 비행기에 최대한 많은 승객을 태우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좌석은 좁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옆 좌석 승객과 접촉이 생겨 불편을 겪기도 한다. '더팁' (thetip.kr)이 빈 좌석 옆을 예약할 확률이 높은 비행기표를 예매 방법을 소개했다.

■ 비행기 뒤쪽 좌석

착륙 후 기내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앞쪽 좌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항공사의 좌석 배열 우선 순위도 '앞에서부터 뒤로'이다. 그러므로 거의 만석 비행기라도 뒤쪽 자리는 몇 석 남아있을 수 있다.

■ 복도 쪽 좌석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복도쪽 좌석을 구매한다. 탑승한 뒤에 좌석을 임의로 바꿀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당연히 복도쪽은 창가쪽보다 빈자리를 얻을 확률이 높다.

■ 일행이 있다면 3인 좌석

만약 2명에서 여행한다면, 3인용 좌석에서 가운데 자리만 비워두고 예약한다. 만석이 아니라면 굳이 가운데 자리에 끼어서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만약 누군가가 가운데에 앉는다면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부탁한다.

■ 비상구 가까운 자리

비상구 앞쪽이나 뒷쪽은 별로 인기가 없다. 의자를 뒤로 아예 젖히지 못하거나, 아주 조금만 젖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다면 이 줄 전체가 비어있을 수도 있다.

■ 좌석 예매율 웹사이트 확인

항공사에 따라 인기 있는 좌석과 인기 없는 좌석이 있다. 역대 좌석 예매율이나 인기 순위를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어떤 좌석이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인기 없는 좌석 옆자리를 고르면 확



▲비상구 앞, 뒷줄은 인기가 없어 줄 전체가 비어있을 수도 있다. 사진=shutterstock

률 높게 비행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시트구루' (seatguru.com)가 있다.

■ 혼자 여행한다면 한 좌석이 이미 예약된 열

홀로 여행한다면 3인 좌석이 있는 열 중에서, 창가나 복도 좌석 하나가 이미 나간 열을 노린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운데 자리에 앉고 싶어할 사람은 없다.

■ 승무원에게 공손하게 물어보기

승무원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도 실제로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모든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 번 문의해 본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꼭 문의한다. 승무원이 더 편안 좌석으로 안내해줄지도 모른다.

■ 일찍 예약하기

가장 중요한 트릭은 좌석을 일찍 예약하는 것이다. 비행기 여행의 원칙은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일찍 전략적으로 예약할수록 더 좋은 자리를 얻게 될 확률이 높다.

친환경 매장

저렴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추천합니다.

관, 걸관 필요없습니다.
방부처리 하지않습니다.

장 의사 이효섭



장례인도
FDR 4701
시신방부
EMB 9702
장례보험
4287740

c.714.951.2520
o.714.870.6303

Scott McAulay Family(FD 159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홈 파티 케이터링 환영



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waiter, waitress 구합니다.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